

사도신경 강해 7강 보조자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I. 예수님의 삶 - 수동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의 내용은 대부분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성자 예수님에 해당하는 조항에만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한결같이 ‘수동태’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conceived),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born),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겪으시고(suffered), 십자가에 달리시고(crucified), 죽으시고(died), 매장되었습니다(buried).

II. 7강 주요 문답 내용(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5문과 45답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45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2. 해설¹⁾

(1)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요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대체로 황당하지만, 가끔은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과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도 선지생도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도 세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들이 죽어 있는 동안 그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흥미로울법한 부분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

1) 이성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흑곰북스, 2013), 171-175.

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부활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아이로의 딸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또 다시 죽을 것이라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절망만 더할 뿐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문맥에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 그분이 획득하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 현재적 의미는 우리를 의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부활을 이해합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성경을 짜 맞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천 년 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럴 듯합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으면서,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 도움’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사망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의’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 죄는 사하여졌을지 모르지만 의는 획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될 뿐입니다.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단지 2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였고, 폭풍을 잔잔하게도 하였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치유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유는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도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저 녀석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유익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과 밀접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았다는 ‘결심’만으로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 생명 안에 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이어서 요리문답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인간들의 부활과 다른 점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몸을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철저하게 신령한 몸, 즉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처럼 흠에 속한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증금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내면 그 물건 값을 다 내지 않아도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나 마술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15:20).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가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주셨고,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익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참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외적인 수단인 세례를 통해 확증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영적인 유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실제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하는 것일 겁니다.